

세계 전통 체질 의학 비교 연구

강기림, 황상문, 박소정, 채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양생기능의학부

A Comparative Study on Traditional Constitutional Medicine in the World

Kirim Kang, Sangmoon Hwang, Sojung Park, Han Chae

Division of Longevity and Bio-function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 Interests in personalized medicine or tailored medicine is growing in recent years, but traditional medicine with properties of tailored medicine have already been developing from many parts of the world. In this review paper, we tri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research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onstitutional medicine by a comparative study.

Methods and Material : We compared Sasang medicine from Korea, Ikkando medicine from Japan, Chinese constitutional medicine, Ayurveda from India. We investigated the current research status by searching academic DBs such as Medline, Riss4u, Kiss, CNKI, CINI. Then we examined characteristics of each medicine from various aspects of physiology-pathology-diagnosis-treatment-prevention.

Results : We found out that each constitutional medicine is being studied the most in their native land. In addition, after analysing characteristics of these constitutional medicine, we learned that Sasang medicine and Ayurveda were putting emphasis on psychological factors in physiology-pathology-diagnosis-treatment-prevention, while Chinese constitutional medicine and Ikkando medicine were focusing on pathological factors.

Discussion : We studied theories of constitutional medicine in various traditional medicine, and verified that Sasang medicine shar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these medicine. We suggest that deeper understandings of other constitutional medicine and attempts at clinical application can lead to advance of Sasang medicine.

keywords : Personalized Medicine, Sasang Medicin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kkando Medicine, Ayurveda, Constitution

I. 서 론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질환 자체보다는 개인의 타고난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¹⁾²⁾ 이

에 따라 맞춤의학이나 개인의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적인 의학 학술 데이터베이스 PUBMED에서 ‘personalized medicine’로 검색한 결과 2001년까지는 매년 한자리수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나 2002년에는 25건, 2003년에는 36건으로 증가했고 2008년에는 185개의 논문을 검색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양의학자들은 휴먼게놈프로젝트(HGP)의 결과를 활용하여 개인별로 맞춤 예방과 맞춤 치료라는 새로운 형식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접수 ▶ 2009년 10월 12일 수정 ▶ 2009년 12월 18일 채택 ▶ 2009년 12월 23일
교신저자 채한,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양생기능의학부
Tel 051-510-8470 Fax 051-510-8470 E-mail han@chaelab.org

맞춤의학은 개인에 따른 차이를 중요시 한다는 면에서 인간을 체질에 따라 나누어 바라보는 체질의학과 유사점이 많다. 체질의학을 역사적으로 살펴 보면 서양에는 대표적인 예로 히포크라테스의 4 체액설이 있다. 세상이 불, 물,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의 네 가지로 인체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체질을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의 4가지로 나눈 것이다.³⁾ 인도의학인 아울베다는 이러한 히포크라테스의 체질론이 포함된 그리스의학의 영향으로 외과수술영역에서 탁월함을 인정받기도 했다.⁴⁾ 동양에서의 체질 관련 내용은 고대 황제내경 「靈樞·陰陽二十五人論」에 언급된 五形人과 「靈樞·洞天」의 五態人을 들 수 있고 「靈樞·逆順肥瘦」에서도 비만인, 마른 사람 등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구분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고유의 전통의학인 사상의학을 들 수 있는데 사상의학은 개개의 질환을 넘어서 개인의 타고난 성정과 장부 등의 내부 요인을 강조함과 동시에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이론까지 정립한 의학이다.

우리나라의 사상의학뿐만 아니라 세계에는 최근에까지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는 전통 체질의학이 존재한다. 앞에서 언급한 인도의 아울베다와 중국의 체질의학, 일본의 일관당의학이 대표적이다. 기원전 1500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시작된 인도의 아울베다는 몸, 정신, 영혼의 건강을 중시하는 생명과학의 의미를 갖는 인도 전통의학이다.⁶⁾ 중국체질의학은 1970년대에 이르러 王琦를 중심으로 한 중의학자들 속에서 기존 중의학의 체질적 요소를 강조하며 시작된 의학이다.⁷⁾ 일관당의학은 1918년 세계를 급습한 유행성 감기를 처방하여 이름을 크게 떨친 모리 도하쿠에 의해 창시된 의학으로 인간을 쉽게 걸리는 질병에 따라 나눈 3가지의 체질과 5대 처방으로 대표되는 의학이다.

이와 같이 세계 곳곳에서는 각 나라의 특징이 내포된 전통의학이 발달해 왔다. 이러한 전통의학들은 각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고 지금까지도 임상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임상적으로 활용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여러 체질의학은 비교 연구된 사례가 많지 않다. 또한 아울베다와 사상의학의 체질의 유사성 비교연구,⁸⁾⁹⁾ 아울베다와 중국의학의 기본이론 비교연구,¹⁰⁾ 왕기에 의해 진행된 중국체질의학과 사상의학의 비교연구,¹¹⁾¹²⁾ 중국과 사상의학의 체질개념에 대한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한 연구⁷⁾ 등에서처럼 두 의학간의 비교 연구는 시도되고 있으나 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체질의학을 전부를 생리-병리-진단-치료-예방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비교된 연구는 보고되

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의 대표적인 전통 체질의학인 사상의학, 아울베다, 중국체질의학, 일관당의학의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과 유사점 및 차이점을 고찰하여 보았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첫째, 각 나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와 메드라인을 통해 논문을 검색하여 세계 전통 체질의학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논문과 단행본을 통하여 각 체질의학의 특성들을 생리-병리-진단-치료-예방의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1. 세계 전통 체질의학 연구 현황

주요 연구대상은 논문이며 각 나라의 체질의학을 비교연구하기 위하여 검색을 하던 중 체질의학의 연구 상황을 파악하고 양질의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검색이 필요함을 알게 되어 전반적인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한 논문 검색을 체계적으로 시도하였다. 논문 검색은 PUBMED¹⁾와 각 나라의 대표적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하였다. 검색 대상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중국의 CNKI,²⁾ 일본의 CINI,³⁾ 그리고 한국의 KISS,⁴⁾ RISS4U⁵⁾의 다섯 가지이다. 인도의 데이터베이스는 검색상의 어려움으로 제외하고 PUBMED를 주요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하였다. 검색은 2009년 2월에 이루어졌으며 PUBMED, KISS, RISS의 검색 범위는 title/abstract, 기간은 1979~2009로 하였고, CNKI의 검색범위는 논문초록, 기간은 1979~2009로 하여 검색하였다.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KISS와 RISS는 검색 후 겹치는 논문은 수작업을 통해 제외하였다. 각 데이터베이스별 검색어는 <Table 1>와 같으며 중국체질학은 KISS, RISS 4U에서는 ‘중국체질학’으로 검색 시에 0건으로 검색됨으로 ‘중국체질의학’으로 CNKI에서는 중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 ‘體質學’, CINI에서는 ‘中國體質醫學’, PUBMED에서는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constitution’로 검색하였다. 영문으로 검색시에도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1) <<http://www.ncbi.nlm.nih.gov/pubmed>>

2) <<http://www.cnki.net>>

3) <<http://ci.nii.ac.jp>>

4) <<http://kiss.kstudy.com>>

5) <<http://www.riss4u.net>>

<Table 1> search keywords of each e-journal

	KISS/RISS*	CNKI**	CINII***	Pubmed****
사상의학	사상의학	四象醫學	四象醫學	sasang medicine
Ayurveda	Ayurveda, 인도의학	Ayurveda, dosha	Ayurveda & 體質	Ayurveda & constitution
중국체질학	중국체질의학, 중의체질의학	體質學	中國體質醫學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constitution
일관당의학	일관당의학	一貫堂醫學	一貫堂醫學	Ikkando medicine

*KISS i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 is Academic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provided by Keris(Korea Education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China Academic Journal Electronic Publishing House, CAJ is the most comprehensive, full-text database of Chinese journals in the world.
 *** The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in Japanese, Scholarly and Academic Information Navigator
 **** PubMed is a service of the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and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아울베다는 의학의 내용 안에 요가, 명상, 마사지 등의 다양한 치료방법이 포함되어 있고 신학, 철학관련 논문이 많아 ‘Ayurveda’ 한 단어로 검색 시에 체질과 관련되지 않은 논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논문들을 제외하기 위해 각 나라별로 ‘Ayurveda’를 기본 검색어로 설정하고 체질을 의미하는 단어를 추가로 더하여 검색하였다. 한국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유르베다, 아유르베다, 아울베다 등 여러 단어가 사용되어 영문으로 검색하였으며 한글로는 인도의학이라 검색하였다. 그 후에 수작업으로 겹치는 논문을 제외하고 의학이 아닌 내용과 함께 체질과의 관련성이 적은 논문은 제외 하였다. CNKI에서는 ‘Ayurveda’로 검색할 경우 역사 등 의학이 아닌 부분이 포함된 논문이 다수 검색됨으로 ‘體質’를 포함하여 검색하였다.

같은 내용의 논문을 검색하고자 하여도 나라별로 통용되는 단어가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였으며 일본과 중국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경우 간자와 번체가 같지 않은 경우를 주의하여 검색하였다.

2. 세계 전통 체질의학의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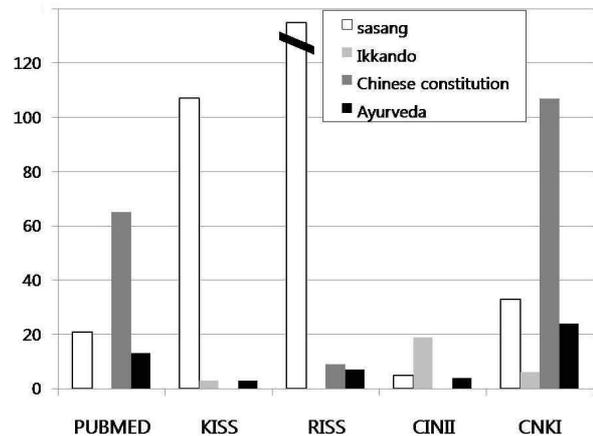
각 나라의 전통의학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단행본과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사상의학은 검색된 논문과 여러 단행본¹³⁾¹⁴⁾을 참고 하였으며 아울베다의 경우도 검색된 논문과 여러단행본¹⁵⁾¹⁶⁾을 참고하였고 중국체질학은 검색된 논문과 王琦의 『중의체질학』을 참고 하였으며 일관당의학은 검색된 논문과 야카주 카쿠(矢數格)의 『한방일관당의학』을 참고하였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생리, 병리, 진단, 치료, 예방, 심리, 체질별 체형 특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III. 결 과

1. 세계 전통 체질의학 연구 현황

검색 결과는 <Figure 1>에서와 같다.



<Figure 1> Registered articles on traditional constitutional medicine with database of United States (Pubmed), Korea (KISS, RISS), Japan (CINII) and China (CNKI)

PUBMED에서 사상의학은 21개가 검색되었고 다음으로 중국체질의학이 65개가 검색되었다. 일관당의학은 PUBMED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색이 어려운데 0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아울베다는 ‘Ayurveda’로 검색시에는 438개로 상당히 많은 수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아울베다의 개념에 관한 이론 연구에서부터 분자세포의학 관련의 연구 논문까지 다양하였으며 ‘constitution’을 포함하여 검색한 결과 음식양생과 더불어 전반적인 건강관리와 관련된 논문이 4개, 분자세포의학 관련 논문 4개, 이론 관련2개, 질병관련 1개, 설문지관련 1개, 개인별 특성관련 1개로 총 13개의 체질관련논문이 검색되었다. 2000년대 논문이 대부분으로 최근에 체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KISS에서 사상의학관련은 107개가 검색되었는데 국내의 연구가 해외의 연구보다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관당의학은 3개 검색되었으며 중국체질의학은 검색되지 않았다. 아울베다 관련논문은 총 8개가 검색되었는데 이 중에서 체질과 상관없는 약물관련 논문이 3개, 의학관련 분야가 아닌 논문이 2개로 체질관련 논문은

총 3개로 검색되었다. RISS에서는 사상의학관련 논문은 국내학술지 451개 검색되었고 일관당의학은 검색되지 않았고, 중국체질의학은 9개가 검색되었다. 그리고 KISS와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양의 아유베다관련 논문이 검색되었는데 국내학술지의 경우 ‘인도의학’이라는 검색어와 더불어 총 18개의 의학관련 논문이 검색되었고 그 중 약물관련이 5개, 역사 관련이 1개 그 외의 내용이 5개로 체질의학 관련은 총 7개로 정리되었다. KISS에서 검색된 3개의 논문은 모두 이곳에서도 검색되었다.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CINII에서는 사상의학은 5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일관당의학관련은 19개가 검색되었다. 중국체질의학관련 논문은 검색되지 않았다. 일본 일관당의학은 일본 안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체질의학에 관한 논문도 많이 검색되지 않았다. 아유베다는 ‘Ayurveda’ & ‘體質’로 검색할 시에는 2개의 논문이, ‘dosha’로 검색 시에도 2개의 논문이 검색되어 총 4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중국의 데이터베이스, CNKI에서 사상의학의 검색결과는 총 33개이며 일관당의학은 6개가 검색되었는데 일관당의학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의 논문이었다.¹⁷⁾ 중국체질의학관련은 107개로 많은 수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아유베다는 ‘Ayurveda’로 검색 시에는 총 26개의 논문이 검색되거나 19개가 의학관련 논문이며 체질을 의미하는 ‘dosha’의 경우 21개의 논문이 검색되거나 그 중 5개가 의학관련 논문으로 총 24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2. 세계 전통 체질의학의 특성 비교

1) 세계 전통 체질의학의 정의 및 생리이론 비교

사상의학은 1984년 동무 이제마에 의해 창안된 의학으로 기존의 자연중심적인 사고가 아닌 유학을 바탕으로 한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하였다.¹³⁾ 사상의학에서는 사람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의 사상인으로 나누고 성정의 편차로 장국대소의 차이가 생기며 이러한 차이로 생리, 병리가 다르게 나타남을 설명한다. 성, 정기가 주요한 병인으로 각 사상인별 병리적인 현상도 달라 치료와 양생법에 있어서도 사상인별 차이를 두는 의학이다. 생리적인 현상은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才幹, 性·情氣, 素症, 完實無病 등을 통해 파악된다.¹³⁾

일관당의학은 도리 모하쿠(1867~1931, 森道)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그의 제자 야카주 카쿠(1893~1966, 矢數格)에 의해 ‘한방 일관당의학’으로 출판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

졌다.¹⁸⁾ 인간을 쉽게 걸리는 질병에 따라 어혈증체질, 장독증체질, 해독증체질의 3가지 체질로 나눈 것으로 관련 증상과 치료 처방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반면 생리적인 내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다.

중국체질의학은 『內經』이나 『傷寒雜病論』의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최근 왕기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체질의학으로 나이, 심신상관, 환경, 유전자관련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왕기의 중국체질의학은 체질을 인체의 체형, 머리와 얼굴, 눈, 코, 입의 형태, 맥상, 성격, 음식, 대소변, 발병 후의 병변 특징과 약물 사용할 때 마땅히 피해야 할 것 등을 바탕으로 체질을 7가지로 나누었으며¹⁹⁾ 신체적인 증상이 위주로 辨證 하듯 辨質한 것이다. 證이나 症狀를 체질보다 가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素質, 氣質보다는 생리적 병리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⁷⁾ 생리부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성별과 연령별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중의학의 기본적인 생리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아유베다는 3000년의 역사를 지닌 인도 전통의학으로 생활의 지혜, 장수의 과학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의학적 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생명현상을 포함하는 하는 전인적 의학이라 할 수 있다. 아유베다에서 인체는 다섯 가지 요소가 다섯 기관과 다섯 가지 경로를 거쳐 인식된다고 생각하였다 (Table 3). 다섯가지 요소는 공(akasha:空), 풍(vayu:風), 화(tejas:火), 수(jala:水), 지(prthivi:地)인데 이는 각 귀, 피부, 눈, 혀, 코와 연결된다. 이 다섯 가지 요소는 인체 내에서 세 가지 기본적인 성분 즉 체질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트리도샤(Tridosha)라고 한다. 세 가지의 생물학적인 기질인 트리도샤(Tridosha)의 조합으로 체질을 7가지로 나누며 임신 시에 체질이 결정되어 평생유지 된다고 한다⁵⁾(Table 2).

종합하면, 체질의 불변성과 더불어 아유베다와 사상의학은 신체와 심리를 포괄하여 체질을 구분하고자 하였고 일본과 중국의 체질의학은 병인이나 쉽게 걸리는 병에 따른 구분으로 체질 자체의 의미보다 그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관당의학을 제외한 나머지 의학에서는 인체의 특성과 더불어 성격, 마음, 정신도 체질을 구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아유베다에서는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인 도샤를 바탕으로 개인이 가진 도샤 중 영향력이 강한 것을 중심으로 각 사람의 체질이 결정된다. 이러한 도샤는 사상의학에서의 각 사상인이 성정에 의해 장부대소로 뚜렷하게 구분되며 독립적인 체질로 존재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

<Table 2> Definition, type classification, and longevity and prevention methods of each traditional constitutional medicine in the world

	Sasang	Ayurveda	Chinese constitution	Ikkando
Definition	Medicine created by Yi Je-ma in 1894. Dividing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Confucianism's value.	Traditional Indian medicine that has 3000 years of history with the medical knowledge and various life's phenomena ¹⁵⁾ . Traditional Indian medicine that has tree dosha constitution three biological substrate.	Medicine that find the origin in Nae-kyoung, based on the theory of Age, mind-body interaction, environment ¹⁹⁾ .	Medicine created by Dori Mohiku. Dividing the constitution into three, based on outward appearance, pulse, abdominal condition and diseases easily caught ¹⁸⁾ .
Type	Tae-Yang(太陽人), So-Yang(少陽人), Tae-Eum(太陰人), So-Eum(少陰人)	Vata(wind, empty), Pitta(fire, water), Kapha(water, earth), Vata- Kapha, Vata-Pitta, Pitta- Kapha, Vata-Pitta-Kapha(samaprakriti, VPK)	Normality, Qi-deficiency, Yang-deficiency, Yin-deficiency, Blood stasis, Phlegm-dampness, Dampness-heat ¹⁹⁾	Blood stasis(瘀血質), Toxified(臟毒質), De-tox.(解毒質)
Longevity & Prevention	Moderation, keeping the balance of seongjeong(性情), is the best prevention and cure.	Routine prevention (management face, neck, yoga and other exercises) Seasonal Prevention Ethical Prevention ¹⁵⁾	Mental cure, food cure, cure life, exercise training, mibyeong Management ¹⁹⁾	Improvement of the constitution (taking right drug about constitution) Food hygiene, and other life forms of the Health life ²¹⁾

2) 세계 전통 체질의학의 병리 이론 비교

사상의학에서는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여, 성정의 부조화나 각 장부간의 균형이 어긋날 경우 병리변화가 발생한다고 한다. 각 사상인마다 다른喜怒哀樂 性情이 偏急되는 것을 병인으로 제시하는데 性氣가 작용하여 表病을 일으키고 情氣가 작용하여 裏病을 일으킨다고 한다.²⁰⁾

<Table 3> Comparison of 5 elements in Ayurveda and traditional Korean medicine⁵⁾¹⁴⁾

properties	Ayurveda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ensory organ	element mahabhula	element five phase	sensory organ	properties
subtle sound, light resistance, and without boundaries	ear (hearing)	empty 空(akasha)	metal, 金(dryness)	nose	no change, end of all things, dry, mature, deulim taken
pressure, activity, coarseness	skin (feeler)	wind 風(vayu)	wood, 木(wind)	eye	the beginning of all things, movement, growth
fire, light, activity, clear	Eye (eyesight)	fire 火(tejas)	fire, 火(summerheat)	tongue	growth, activity exuberance .
liquid, coldness, soft	tongue (taste)	water 水(jala)	water, 水(coldness)	Ear	cold, down flow, should benefit, later.
heaviness, rugged, Slow, Stop	nose (smell)	earth 地(prthivi)	earth, 土(dampness)	mouth	birth of all things, growth, grow things

일관당의학에서는 질병을 여러 가지 독소를 체내에 축적함으로써 그것이 내적 원인이 되고 외인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이라 정의한다. 각 체질별마다 특징적으로 체내에 축적된 병인이 되는 독소가 있다. 어혈증 체질에서의 병인은 혈액

의 기능을 잃은 인체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어혈이며 장독증 체질의 병인은 新陳代謝障害物 등 기타의 독이 신체의 각 장기에 축적된 장독이다. 해독증 체질은 四物黃連解毒湯에 의해 치료되는 체질로 사물황연해독탕의 해독에서 이름을 딴 체질로 여기서의 독은 우선적으로 결핵성 독을 의미한다.²¹⁾²²⁾

중국체질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질병의 發生, 發展, 轉歸, 預後 등의 차이점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체질에 따른 특징적인 병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개체의 특이한 체질유형은 구체적인 질병유형과 성질을 결정하는데 체질은 생명의 안정적인 특수 상태를 나타내므로 질병의 배경이 되고 이러한 체질의 차이가 질병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⁹⁾²³⁾

아울베다에서는 체질을 의미하는 도샤(dosha), 생물학적 과정이 일어나는 내부의 에너지인 아그니(agni), 외부에서 유입된 독소나 내부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독소를 의미하는 아마(ama)가 병인이 된다. 이중에서 각 도샤간의 균형을 중시하며 질병은 개인의 성격과 행동에 따른 체질적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즉, 질병에 있어서 외부의

요인보다 내부적인 기능의 문제를 중시한다. 도샤의 균형을 깨뜨리는 세 가지 요소는 첫째, 자연 질서를 위반하고 지성, 감성, 기억을 손상시키는 생각이나 행동이고 둘째, 다섯 가지 감각기관의 지나치거나 부족한 사용이며 셋째, 나이, 계절, 시각에 부적절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⁵⁾¹⁵⁾(Table 4).

병리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울베다에서는 사상의학과 같이 인체 내부에서의 조화와 인체와 외부와의 조화를 중시하였고 외부의 조건보다 내부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중국체질의학에서는 체질이 질병의 바탕이

<Table 4> Path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methods of each traditional constitutional medicine in the world

	Sasang	Ayurveda	Chinese Constitution	Ikkando
Pathology	Incongruity of seongjeong(性情) leads to incongruity of the body and the organs, causing diseases.	Dosha incongruity causes diseases. Three factors causing dosha imbalance are ¹⁵⁾ : 1. body abuse 2. inappropriate use of sensory organs 3. conduct not appropriate for age, time or season	1) Diseases easily caught is affected by constitution 2) Transition and change of the disease is restricted by constitution ¹⁹⁾	Internal and external causes together leads to diseases. Internal causes are toxins accumulated in the body, which vary according to 3 distinct groups ²¹⁾ : 1. Blood stasis(瘀血質) - Caused by blood stasis, food toxin, water toxin 2. Toxicified, stroke(臟毒質) - Caused by toxins like metabolic wastes accumulated in the organs. 3. De-tox, allergy(解毒質) - Caused mainly by tubercular toxin
Diagnosis	Diagnosis of the body type before pattern/syndrome identification Sleep, sweating, urination, excretion are main inspection.	Use all senses except taste sense. Inspection, listening and smelling examination, palpation, prognosis. Often use a urine test ¹⁵⁾	Diagnosis i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body shape, physiological functions and psychological functions ¹⁹⁾ .	Diagnosis is mainly by inspection, pulse diagnosis and abdominal examination ²¹⁾ .
Treatment	Acupuncture or medicine treatment for the disease pattern/syndrome, following the identified body type.	Meditation, fasting, yoga, breathing, massage, aroma therapy, five kinds of therapy (vomiting, laxative, enema, nasal medication, bloodletting), oil therapy, sweating therapy, warm therapy, mitigation therapy, dietary therapy, herb therapy, etc ¹⁵⁾ .	Treatment according to innate characteristics, age, sex considering living conditions or environment. Different treatment for the same disease, same treatment for the different disease ¹⁹⁾ .	Main formula established for the 3 groups, i.e, diagnosis is readily a treatment ²¹⁾ : 1. Tongdao-san(通導散) for the Blood stasis(瘀血質) 2. Fangfengtongsheng-san(防風通聖散) for the Toxicified, stroke(臟毒質) 3. Huanglianjiedu-tang(黃連解毒湯) for the De-tox, allergy(解毒質)

되는 것 이외에 체질별 특정한 병인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일관당의학에서는 구체적인 특정 병인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3) 세계 전통 체질의학의 진단 이론 비교

사상의학에서는 진단에 있어 우선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과 더불어 안면형태 등을 관찰하여 어떠한 사상인 인지를 결정하고 결정된 인(체질)을 기준으로 素症, 素病, 病症을 구분한다. 이 때의 證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수면시간, 땀, 소변, 대변 등의 정보를 이용하고 맥진, 설진, 복진, 손발의 촉진, 피부의 상태 등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한열, 표리를 알아내고 병의 경중을 파악한다.¹³⁾

일관당의학에서는 망진, 맥진, 복진을 통해 진단하는데 체질별로 진단하는 방법에 있어 우선되는 것이 있다. 어혈증은 망진이 편리하며 붉은 안색이 특징적이고 장독증은 복진 시 장독이 가득찬 형태임으로 복내 지방이 쌓여 있어 전체적으로 복근이 단단하고 해독증의 경우, 얼굴색은 주로 창백하거나 흑색이며 수척한 편으로 목이 가늘고 길며 가슴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²¹⁾.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체질인지를 진단하는 것이 곧, 병증을 알아내는 것이 된다.

중국체질의학에서는 형태특징, 생리기능, 심리기능에 따른 세 가지의 진단방법을 제시한다. 형태는 체격, 체형, 자

세 등을 포괄하고 생리는 호흡, 설상, 맥상 등을 통해 진단하며 심리기능은 정서경향이나 감정, 인지 속도, 행위표현 등 인격을 포괄하는 부분을 의미한다.¹⁹⁾ 하지만 주로 진단에 직접 활용되는 것은 피부의 윤택이나 설진, 망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병증을 나타내는 증상들이며 심리적인 부분은 각 체질의 특징 정도로 소개 된다. 체질을 진단하는 과정이 변증의 과정과 비슷하여 체질을 진단하는 것을 辨質한다고 표현한다.⁷⁾

아울베다에서는 인간의 모든 감각을 사용해 진단하고자 하며 대변, 소변, 혀, 소리, 감촉, 시각, 외모 및 맥박이 주요한 진단인자이다. 주로, 망진, 설진, 문진, 예후를 통하여 각 도샤를 구분하는데 설진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예후에 있어서는 쉽게 치료될 수 있거나 어렵게 치료되는 경우 호전될 수 없거나 치료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며 진단한다⁵⁾ (Table 4).

진단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상의학, 중국체질의학, 일관당의학에서 망진, 맥진을 중요시 하는 것을 공통점이라 할 수 있고 아울베다에서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하고자 하나 기본적인 진단 방법은 설진, 망진으로 다른 체질의학과 유사하다. 사상의학에서는 성질재간, 아울베다에서는 성격을 고려하여 사상인 및 도샤를 구분하는 것이 병증진단에 우선시되는 것에 반하여 중국체질의학과 일관당의학에서는 진단을 통한 체질 구분이 잘 걸리는 질병이

나 질병의 특성을 나타내고, 혹은 치료제의 의미를 포함하여 체질이 곧 병증을 의미하여 체질을 진단하는 것이 병증을 진단하는 것이 된다.

4) 세계 전통 체질의학의 치료 이론 비교

사상의학에서는 각 사상인을 구분하여 진단한 후 證을 통해 병증을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체질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정기에 따라 치료한다.²⁰⁾ 각 사상인별 정기는 태양인의 吸聚之氣, 소양인의 陰清之氣, 태음인의 呼散之氣, 소음인의 陽煖之氣로 保命之主라 하는데 이것이 치료의 기본이 된다.¹³⁾

일관당의학에서는 각 체질별로 증상이나 질환의 특징에 따라 주가 되는 약이 있다. 장독증에는 방풍통성산, 어혈증에는 통도산 해독증에는 시기별로 황연해독탕, 형개 연고탕, 용담사간탕이 있고 기본 처방을 주로 하여 가감하여 사용한다.²¹⁾

중국체질의학에서는 보통의 중의학과 한의학에서 말하는 질병치료에 있어서의 기본을 이야기 한다.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와 유기체의 병리상태를 바로잡아 정상범위 내로 회복시키는 것이 치료이다. 체질이 증의 형성, 전변과 전이를 제약함으로 질병을 치료하는데 체질을 고려하는 정도이다.¹⁹⁾²³⁾

아울베다에서는 다양한 계절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과 신체의 불균형이 병인이라고 보고 도샤를 진단한 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한다. 치료에는 대상에 따라 육체와 정신, 영적인 부분의 세 가지 요법으로 구분된다. 육체적인 부분의 치료에는 계절에 맞는 식이요법과 구토, 설사 등이 구체적인 치료방법이 있고 정신을 다스리는 치료에는 명상 등의 방법이 있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성한 의식이나 요가가 포함된다¹⁵⁾(Table 4).

종합하면, 진단을 통해 구분한 체질을 바탕으로 치료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사상의학에서는 사상인을 진단 후 병증 진단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처방이 진행되고 일관당의학과 중국체질의학에서는 각 체질별 특징이 병증과 유사하여 증을 바탕으로 각 체질별 해당하는 치료법을 사용하게 된다. 아울베다에서도 체질별 치료법을 구분하고 있지만 보다 다양한 치료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5) 세계 전통 체질의학의 양생 및 예방 이론 비교

사상의학에서는 병이 생기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성정의 부조화라 함으로 성정의 조화를 유지시키는 中庸의 삶의

자세가 최선의 예방법이라 가르친다. 그리고 각 사상인 별 장부크기의 특징에 따라 성하고 약한 기를 조화롭게 사용해야 한다. 각 사상인 별로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예방의 한 방법이다.

일관당의학은 각 체질에 맞는 약 복용하는 것을 일종의 예방이라고 하는데 어혈증 체질자의 경우 축어혈제를 복용하여 형성된 독을 내보내야 함을 강조하고 생활양식의 위생법을 지키는 예로 부인들이 월경이 순조롭도록 하는 것 등을 언급하나 특별한 내용은 없다.²¹⁾

중국체질의학에서는 황제내경의 「四氣調神大論」의 병이 심해지기 전에 치료해야 한다는 미병의 개념으로 예방의 내용을 설명한다. 체질별 양생법보다는 기존의 중의학의 양생이론과 같이 정신을 조절하고 기르며, 사계절에 순응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며 배경을 선택하고, 운동, 음식조절, 기거 양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¹⁹⁾²³⁾

아울베다에서는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 치아, 혀, 목, 얼굴관리와 더불어 운동, 일어나는 시간 등의 지침을 설명하는 일상적인 양생법, 각 도샤별 어울리는 계절적인 양생법, 감정의 조절을 바탕으로 건강한 마음을 중시하는 윤리적인 양생법을 제시한다.⁵⁾¹⁶⁾ 일상적인 양생법에 있어서 섭생을 중요시하여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임을 강조한다.(Table 2)

종합하면 양생 및 예방에 있어서 조화를 중시하는 점이 사상의학과 아울베다의 공통점이나 사상의학의 양생 및 예방법은 각 사상인별 특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인체 내에서 도샤의 조화를 중시하는 아울베다와 차이점이 있다. 일본의 일관당의학은 각 병인에 따른 주의점이 소개된 정도이고 중의체질학은 기존의 중의학의 예방법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하고 있다.

IV. 고 찰

최근 서양에서는 같은 약을 쓰더라도 각 개인별로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²³⁾ 이에 따라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들을 통해 개별의학, 맞춤의학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를 선두로 하여 관련 유전자를 찾아내고 개인별로 다양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하지만 체질관련 유전자를 전부 발견하거나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모두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유전자와 체질 혹은 질병과의 상관관

계를 완벽하게 밝히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서양에서는 체질의학과 관련하여 히포크라테스의 4 체액설이 대표적이며 인체를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은 내배엽형, 근골격이 강한 중배엽형, 가늘고 마른 체격의 외배엽형의 세 가지로 나눈 켈턴의 소마토타입(Somatotype, 1970)이 있다. 켈턴의 소마토타입은 사상의학 관련연구도 진행하고 있다.⁶⁾²⁵⁾ 동양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 개인별로의 특성을 살려 진단, 치료 및 예방까지 연관시키는 맞춤의학이라 할 수 있는 체질의학이 일본, 중국, 한국에 존재하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Figure 1).

이를 바탕으로 세계 맞춤의학에 대한 연구를 위한 검색결과, 맞춤의학에 대한 전통의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각 나라별 비교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PUBMED에서도 체질 관련 논문이 다수 검색됨을 통해서 전통체질의학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뿐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체질, 맞춤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나라별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일관당의학은 본토나 밖에서나 관련 연구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중국체질의학은 상당히 많은 논문이 검색되었고 중국 체질의학에 관한 연구²⁷⁾와 더불어 세계시장에 이미 진출한 중의학과 아올베다와의 비교 연구,¹⁰⁾ 중의학이라는 근원이 같으나 지리 문화, 사회환경, 민족습성에 따른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 사상의학과 비교연구¹¹⁾¹²⁾도 검색할 수 있었다. 각 나라별로 자국의 체질의학을 바탕으로 비교한 연구는 있었으나 여러 의학을 한번에 비교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의 전통의학을 생리-병리-진단-치료-예방의 내용으로 전반적인 비교연구를 하였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의 전통 체질의학을 비교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체질과 심리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상의학에서는 성정을 바탕으로 체질이 구분되어 생리, 병리에 영향을 미치고 진단과 치료, 양생에도 차이를 가져옴을 설명하고 아올베다에서도 영혼과 정신의 작용을 중시하며 생리, 병리, 치료, 예방에 있어서도 심리적인 부분의 건강과 조화를 강조하며 각 도샤별 성격의 특징을 제시한다. 중국 체질학에서는 감각과 지각을 뜻하는 認知, 감정을 의미하는 情感, 성격을 의미하는 氣質이 체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설명한다. 둘째, 체질을 고정적인 요소라고 보는 사상의학과 아올베다에서 체질과 심리와의 연관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사상의학과 아올베다에서는 심리적인 부분인 성정, 성격이 체질의 생리, 병리적인 특징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진단, 치료, 양생 및 예방

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강조 된다. 이에 반대로 중국 체질의학과 일관당의학에서의 체질은 불변하는 요소가 아니며 경향성이나 증으로 인식되는데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도 정신이나 성정이 중요하게 강조되지 않았다.

셋째, 체질의학에서는 치료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조화를 중시하였다. 아올베다에서의 조화는 몸, 정신, 영혼의 조화와 자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 도샤의 조화를 의미하는데 치료에 있어서 이러한 조화로우음을 강조한다. 사상의학에서는 성정이 장부의 편차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기본 체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정의 적절하지 못하는 것을 병의 첫 번째 원인으로 설명하며 성정의 조화를 중시한다.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일본의학과 중국체질의학은 체질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질병에 대한 경향성에 크게 중점을 두어 체질이라기보다 동일한 질병을 지니거나 관련된 특징을 나타내는 그룹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상의학과 비교하자면 중국의 辨體質에서의 체질은 사상의학에서는 소증이나 병증의 단계로 볼 수 있다.⁷⁾ 이 두 나라의 체질의학에 비해 한국의 사상의학과 인도의 아올베다는 진단, 치료, 예방의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체의 증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Mind-Body Interaction)을 중시하는 체질의학으로 각 개인의 건강에 심리적인 영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향상 시키고자 하는 의학의 근본적인 목표와 관련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각 나라의 문화와 철학적 특징이 살아 있는 전통체질의학들은 각 개인의 병에 대한 감수성, 반응성, 경향성을 알아내 치료하는 것에서부터 평상시의 건강관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각 개인의 특성과 자율성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맞춤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의학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비교연구를 토대로 임상에 응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검색어에 있어서 나라 간에 통일성을 주고자 하였으며 체질의학의 특성상 주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필요하지 않은 논문이라고 판단하여 간단한 검색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각 나라별 구체적인 검색어를 사용하여 보다 자세한 논문 검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나라의 전통의학을 비교함에 있어서 생리, 병리, 진단, 치료, 예방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구체적인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체질의학에 있어서 심리적인 면이 중시됨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는데 전통체질의학, 특히 인도

와 한국에 있어서 체질과 심리적인 면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 참고문헌

1. Stacey Gabriel, 「Variation in the Human Genome and the Inherited Basis of Common Disease」, 『Seminar in Oncology』, 2006;33(11):46-49.
2. James G. Taylor, Eun-Hwa Choi, Charles B. Foster and Stephen J. Chanock, 「Using Genetic Variation to Study Human Disease」, 『Trend in Molecular Medicine』, 2001;7(11):507-512.
3. Jouanna Jacques, 『히포크라테스』, 서울:아침이슬, 2004.
4. 김덕곤, 「한국의학과 인도전통의학의 비교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5;26(2):201-216.
5. 박찬국, 박중운, 「고대인도의학(Ayurveda)의 형성과 체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8;11(1):516-674
6. 이종훈, 조정효, 정광조, 손창규, 「사상체질의학을 포함한 체질론적 의학이론의 비교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8;29(4):161-170.
7. 김은희, 서영광, 정의홍, 김선형, 이수경, 고병희, 김달래, 「중국의 辨質論治 이론과 한국 四象體質 의학에서의 體質 이론 비교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9;21(1): 35-43.
8. 최경화, 「아유르베다의 바다, 피타, 카파체질과 사상체질과의 연관성 연구」, 중앙대학교, 2007
9. 배현지, 「아유르베다의 트리도샤와 한의학의 사상체질비교」, 창원대학교, 2008.
10. Patwardhan B, Warude D, Pushpangadan P, Bhatt N, 「Ayurveda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comparative Overview」,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05;2(4): 465-473.
11. 王琦, 李英帥, 馬曉峰, 「中韩医学对体质问题的研究比较(上)」, 『浙江中醫雜誌』, 2008;43:311-313.
12. 王琦, 李英帥, 馬曉峰, 「中韩医学对体质问题的研究比较(下)」, 『浙江中醫雜誌』, 2008;43:375-377.
13. 송일병 외, 『改訂增補四象醫學』, 서울:집문당, 2006.
14. 전국한외과 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개정판동의생리학』, 경기도 파주:집문당, 2008.
15. 박중운, 『아유르베다입문』, 서울 : 지영사, 2008.
16. 데이비드 프롤리, 수바슈 라나데, 『자연의학아유르베다』, 창원사:슈리크리슈나다스 아쉬람, 2008.
17. 趙蘊坤, 張文鈞, 「一貫堂醫學在现代醫學中的价值」, 『日本醫學介绍, 编辑部邮箱』, 1986;10.
18. Ki ho Joh, Seong Sik Park, Katutoshi Terasawa, Yutaka Shimada, Won Chul Lee, 「A study of the “IkkandoMedicine” in Japanese Oriental Medicin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997; 9(1):339-352.
19. 王琦, 『중의체질학』 서울시 : 정담, 1999
20. 황민우, 고병희, 「四象醫學의 病因에 關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9;21(1):1-19.
21. 矢數格, 『漢方一貫堂醫學』, 원주시:의방출판사, 2006.
22. 矢數, 圭堂, 「4.森道伯先生の一貫堂醫學(創造と發展 : 創方とその後)」, 『日本東洋醫學雜誌』, 2000;51(3):423-428.
23. 王琦, 『中醫體質學』, 人民衛生出版社, 2005.
24. Bertram G. Katzung, 『약리학 제10판』, 서울:고문사, 2008.
25. 채한, 박수진, 이수진, 고광찬, 「사상유형학의 심리학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04;25(2):151-164.
26. Alex Hankey, 「Ayurvedic Physiology and Etiology: Ayurvedo Amritanaam. The Doshas and Their Functioning in Terms of Contemporary Biology and Physical Chemistry」,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04;7(5):567-574.
27. 吳承玉, 李向榮, 「中医体质与辨证论治的相关性研究」, 『Journal of Nanjing TCM Univercity』, 2008;24(1): 1-3.